

■ 리옹·가나자와에서 배우는 유럽·일본의 문화도시



푸브리에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바라 본 리옹 시의 전경.



일본 전통 정원인 겐로쿠엔에서 바라 본 가나자와 시 전경.

유럽과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손꼽히는 곳이 리옹(프랑스)과 가나자와다. 이들 도시는 이미 갖춰진 문화 및 역사자원을 소중히 보존하거나 복원해 이를 도시의 상징으로 삼고 성장해 나가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극장, 박물관 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도심 내 하천 주변이나 구도심에 집적돼 있으며,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들 도시를 방문하면서 높은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광주는 이들 도시의 장단점을 분석, 앞선 정책이나 사업은 모범으로 삼고 광주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거나 새롭게 창조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적 완벽보존 중세문화 성쇠가 한눈에
공예·염색 창작촌...시민 모두가 예술가

중세 건축물들 세계적 관광 명소로

리옹 인구 47만5000명 면적 47.87km²의 프랑스 3번째 도시 리옹은 가장 프랑스적인 도시로 유명하다. 프랑스 남부, 파리에서 테레베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 도시는 인구 면에서는 마르세유에 뒤지지만 파리를 제외한 지방의 수도로 더 알려져 있다. 지난 1969년 리옹을 포함한 주변 58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그랑 리옹(Grand Ryon)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면적은 527.15km²에 포함된 인구는 126만명으로 광주시와 비슷하다.



가나자와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은 시민예술촌.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의 근거지이자 새로운 문화자원의 발상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리옹에는 손강과 룡강이라는 두 줄기의 큰 강이 지나며 그 강변을 중심으로 구도심이 형성돼 있다. 구도심은 푸브리에르 노트르담 대성당(Basilique de Notre Dame de Fourviere)을 중심으로 손강 주변, 손강과 룡강 사이의 삼각주에 펼쳐져 있는데, 중세 및 근세 건축물들을 거의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다. 이 중세 및 근세 건축물들은 역사 박물관, 미니어처박물관, 로트박물관 등과 극장으로, 때로는 젊은 예술가들의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외관의 고풍스러움은 그대로 간직하되 그 쓰임새에 맞게 내부를 손질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구도심에는 이 건물들과 함께 골목길에 있다. 차량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좁은 이 길 양편에는 노천카페와 노점, 기념품가게, 명품 상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다. 골목길은 또 프랑스 광경의 상징인 레지스탕스의 주무대였다.

공장·전통건물 등 문화공간 재탄생

가나자와 인구 46만2478명의 일본 이치가와현의 중소도시 가나자와는 일본 내 각종 조사에서 골지의 대도시들을 제치고 '살고 싶은 도시' 순위 10위권 내에 자리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정도의 인구, 면적은 광주와 비슷한 467.77km²의 이 도시는 근대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금박과 염색 등 전통 공예산업을 기반으로 창조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관광객들은 이 거리를 거닐며 박물관이나 미술관, 극장에 들르거나 벨레쿠르(bellecour)광장에 나와 고즈넉한 시간을 즐긴다. 너무도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돼 있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로마제국의 유물인 대형 공원장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이러한 역사유산 덕에 리옹 구도심은 지난 1998년 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빛의 축제로 유명한 리옹이지만 정작 야경은 화려하지 않다. 대표적인 중세 및 근세건축물에 대해서만 상향식 조명을 사용해 강조하고 교량 역시 은은하게 강물을 비출 뿐이다. 매주 일요일 오전 손강 근처에는 아트마켓이, 룡강 근처에는 재래시장이 열려 내·외국인들이 찾고 있다. 엘리제(여·25)씨는 "구도심은 걸어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공간이 들어서 있다"며 "아름다운 건축물과 거리, 광장, 그리고 수많은 상점 등이 각각의 매력을 발산하며 한 공간에 자리하고 있는 리옹이야말로 대표적인 문화도시"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고 역사도시로서의 기반 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을 엮어내는 곳으로도 정평이 나왔다. 가나자와시가 제정한 조례는 국가정책을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시민들 역시 이런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가나자와의 아이치시장을 가는 도중 만난 20대 남자는 길을 묻는 기자에게 5분여동안 자세히 설명한 뒤 "번 곳에서 가나자와를 찾아줘 감사하다"고 했다. 깨끗한 거리와 외국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친절함 응대 역시 이 도시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라는 것이다.



고즈넉한 리옹의 골목길에는 노천카페와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이 골목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항거하는 레지스탕스의 주무대이기도 했다.

가나자와에서 생산되는 전통공예품만도 22개 종류에 이르며,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가나자와 시민창작의 숲',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등에서 생산·교육·전시되고 있다. 핵심산업인 공예품의 판매가 하향세에 접어들자 지난 2009년 염색기술진흥연구소, 2010년 가나자와 금박기술진흥연구소를 설치해 기술지원 및 판로확대, 상품개발 등에 나선 발 빠른 행정기관의 대처도 눈에 띈다.

고품질·고가를 지향하며 고소득 소비자를 겨냥한 전시회 개최 및 고급 공예잡지 발간, 공예기술 전승자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 각종 가나자와의 도시정책은 '역사'와 '혁신'이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나자와시청 기획조정과의 미즈요시 겐이치(水吉健一)씨는 "가나자와가 추진해온 과정이 유네스코 창조도시와 일치하기 때문에 어떤 도시보다도 짧은 시간에 가입할 수 있었다"며 "높은 건물, 대규모 상업시설은 없지만 가나자와는 일본 국민 누구나 한 번쯤 와보고 싶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리옹·가나자와=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의 대표 맛집!
정갈함과 정성을 다하여 최상의 음식을 준비 하겠습니다.

전북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古家 고향의 맛 - 전통 고가약소리탕

약탕기 홍삼 삼계탕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예약문의 062-226-8254

남도의 맛집 한정식전문점 다원각

메뉴
굴비정식 | 생선모듬구이 | 간장게장
갈치·병치조림 | 계절음식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27-15호
TEL. 062-263-4488 Mobile. 011-213-7670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원비!
150석, 9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옆

유·田 일식 참치

유전일식이 참치와 함께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20여가지 음식이 준비된 고품격 점심특선 을 저렴하게 만나볼수 있습니다
가족모임, 귀한 손님 접대에는 맛있고 대체로운 고품격 유전일식이 으뜸입니다.

점식 특선 17,000원
유전 특정식..... 25,000원
유전 특참치..... 35,000원

유전일식은 최고의 맛과 품격을 추구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53
예약전화. 062-233-9911

자연속애 녹색한우촌

믿을 수 있는 자연속애 녹색한우촌 한우의 옛정성 그대로입니다

우리명에서 우리소로 키운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한우를 화순 축협 자연속 녹색한우촌에서 직접 구매하여 좋은 사람들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속애 녹색한우촌 061-374-0092·371-7000